

# 미국의 신규농 육성사업

유 은 영\*

## 1. 들어가며

농업분야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국에서는 2002년부터 '신규농 육성사업(The Beginning of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 BFRDP)'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농 육성사업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다음 세대의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정책사업이다. USDA의 산하 기관인 국립 식량농업기구(The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각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조직들은 해당 지역의 신규 농업인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신규농 육성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신청하면 NIFA에서 심사하여 지원할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250여 개의 신규 농업인 육성프로그램에 총 1억 5,00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USDA에서는 신규농 육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및 한계점 등을 검토하고자 정기적으로 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7년에는 '다음 세대를 경작하다'라는 제목의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sup>1)</sup> 전국지속가능농업연맹(The National Sustainable Agriculture Coalition, NSAC)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이 글에서는 NSAC가 2017년 발간한 관련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신규농 육성사업으로 미국 전역에서 신규 농업인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매년 교육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wordtime84@krei.re.kr).

1) Cultivating the Next generation - An Evaluation of the Beginning Farmers & Rancher Development Program(2009 to 2015), 2017, National Sustainable Agriculture Coal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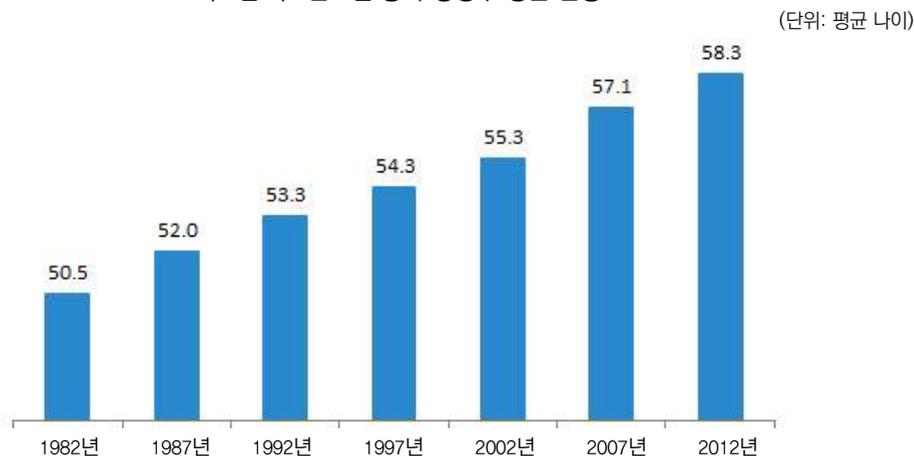
프로그램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7년 동안 진행된 신규농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규 농업인 지원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미국의 농업인 고령화 실태<sup>2)</sup>

미국의 농업인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농업인 수도 감소하여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신규 농업인 수도 감소하였다. 2012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농업 종사자 수는 320만 명이다. 320만 명의 농업인이 9억 1,500만 평방미터 규모의 토지에서 210만 개의 농장을 운영하며 농산물, 연료, 섬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07년 인구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5년 동안 농가경영주 수, 농업 종사자 수 모두 감소하였다. 2007년 농가경영주 수 220만 4,792명에서 2012년 2,10만 9,303명으로 4.3%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농업 종사자 수 328만 1,534명에서 2012년 318만 74명으로 3.1% 감소하였다.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그림 1>과 같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2년 기준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8.3세인 것으로 나타나, 2007년 조사 결과인 57.1세에

<그림 1> 연도별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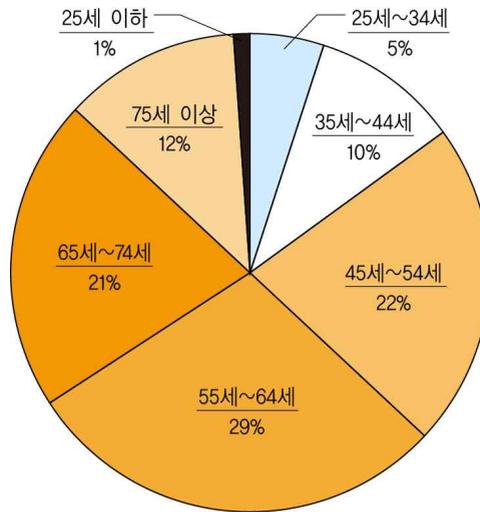
자료: USDA NASS(2012).

2) USDA NASS(2012), '2012 Census Highlights' 참조  
([https://www.agcensus.usda.gov/Publications/2012/Online\\_Resources/Highlights/Farm\\_Demographics/](https://www.agcensus.usda.gov/Publications/2012/Online_Resources/Highlights/Farm_Demographics/)).  
검색일: 2017.12.07.

비해 1.2세 증가하였다. 30년 전인 1982년에 비해 농가 경영주의 평균 나이는 약 8세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1992년에 비해서도 5세 증가하였다. 미국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2012년 농가 경영주 연령대별 비율

(n=2,109,30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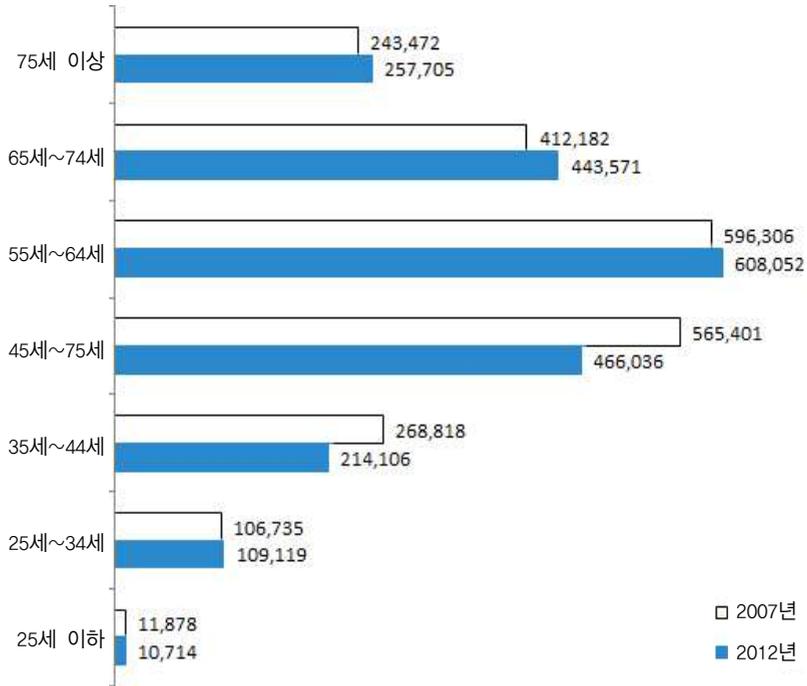
자료: USDA NASS(2012).

2012년 기준 연령대별 농가 경영주 비율은 〈그림 2〉와 같다. 35세 미만의 농가 경영주는 전체의 6%에 불과하다. 35세부터 64세인 농가 경영주 비율은 61%이고, 고령 농업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농가 경영주의 비율은 33%이다.

〈그림 3〉과 같이, 2007년과 2012년의 연령대별 농가 경영주 수를 비교했다. 5년 동안 54세 이하의 농가 경영주 수는 15만 2,857명 감소(2007년 95만 2,832명/ 2012년 79만 9,975명)한 반면, 55세 이상의 농가 경영주 수는 5만 7,368명 증가(2007년 125만 1,960명/ 2012년 130만 9,328명)하였다. 농가 경영주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대는 45세~54세로 5년 동안 9만 9,365명 감소하였다.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65세~74세로 5년 동안 3만 1,389명 증가하였다. 즉,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은 증가하고 젊은 연령층의 농업인은 감소하여,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림 3〉 2007년 및 2012년 연령대별 농가 경영주 수

(단위: 명)



자료: USDA NASS(2012).

신규 농가 경영주의 수도 감소하였다.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하인 농가 경영주의 수가 2007년 58만 3,286명에서 2012년 46만 9,098명으로 감소하여, 5년 동안 19.6% 감소하였다.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하인 농가 경영주 수는 2007년 22만 3,741명에서 2012년 17만 1,550명으로 감소하여, 5년 동안 23.3% 감소했다. 미국은 이처럼 미래의 농업을 이어갈 후계 세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 신규농 육성사업(BFRDP) 주요내용과 추진과정

#### 3.1. 사업 주요내용

신규농 육성사업은 2002년 농업법(Farm bill)<sup>3)</sup>에서 처음 기획된 공모형 보조금사업으로, USDA의 산하기관인 국립식량농업기구(NIFA)에서 추진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까지

3) 미국의 농업법(Farm bill)은 연방정부의 농업과 식량 정책수단으로 미국 의회에서 5년 마다 포괄적인 법안이 수립 및 추진되며, 농업 관련 모든 분야가 다루어짐.

공식화되지 않고 시범 사업으로만 진행되다가, 2008년 농업법(Farm bill) 개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신규농 육성사업은 2014년 농업법에서 한 번 더 예산을 배정하였다. 신규 농업인에게 교육, 기술적 지원, 금전적 지원 등의 도움을 주는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 매년 2,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4년 발효된 이 정책은 2018년에 완료되며, 사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업법에서 다시 명문화되어야 한다.

신규농 육성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 전역의 교육기관, 공공기관, 생산단체, 비영리기업, 협동조합 등이 신규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모에 신청한다. NIFA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직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규농 육성사업은 특히 지역 간, 주(州) 간,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거나, 공공기관과 민간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한 프로그램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즉,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직, 비정부 조직, 학교 등의 교육기관, 협동조합, USDA와 국가기관과 관련된 조직, 지역 대학 등 다양한 조직이 협업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신규농 육성사업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 훈련, 멘토링 또는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 은퇴 농업인 또는 토지 소유자와 신규 농업인을 연결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토지 연결' 프로그램,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과 농업적 재활프로그램, 교육과정 체계를 갖춘 신규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교육의 주제는 생산 실습, 위험관리 교육, 작목 다양화와 시장 전략, 신용관리, 농업 안전교육 등이 있다.

신규농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률적인 필요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비정부기관이나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은 프로젝트가 우선순위로 선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전역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 수혜 규모의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3.2. 사업 추진과정

### 3.2.1. 사업 수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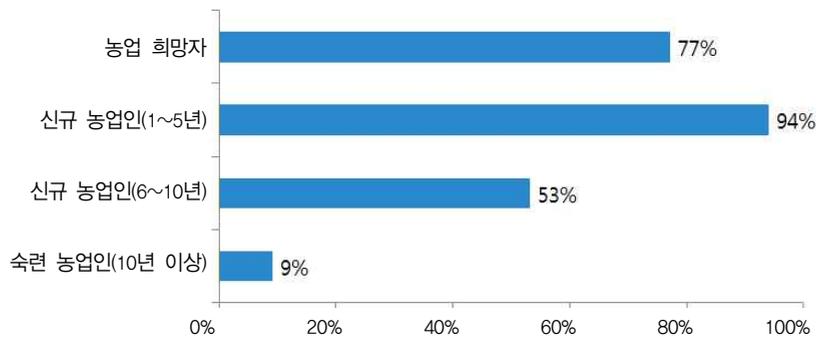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신규농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전국의 프로그

램은 총 245개이다. 이 중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진행된 119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점검하였다. 119개의 프로그램은 3년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프로그램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농업인의 특성은 <그림 4>과 같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신규 농업인에 해당하는 1~5년 동안 농업에 종사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119개 프로그램 중 94%가 이에 해당한다. 전체 프로그램의 3/4이 아직 농업을 시작하지 않은 농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느 정도 갖추어진 신규 농업인에 해당하는 6~10년 동안 농업에 종사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의 53%이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112개 프로그램)이 대상자 그룹 중 2개 이상의 그룹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의 9%는 농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넘은 숙련 농업인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신규 농업인의 토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숙련 농업인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이 가진 토지를 신규 농업인에게 이전하려는 숙련 농업인과 함께 진행했다.

<그림 4> 경력 수준에 따른 참여 농업인 비율

(중복가능/ n=86/ 단위: %)



자료: Obudzinski *et al.*(2017).

프로그램이 초점을 맞춘 농업 분야를 확인해보면, 전체 프로그램의 84%가 소규모 농장을 지원하고자 했다. 64%가 유기농 또는 지속가능한 작물 재배 농가를 지원하였고, 63%는 특산작물 재배농가를, 49%는 목축업자를, 25%는 특산물을 제외한 지역 전통작물 생산농가를 지원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신규농 육성사업 지침에는 전체 지원금의 25%를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투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원주민, 아시아인 또는 북미 동부 연안 주민 등과 같은 취약계층과 농업 노동자와 자원이 부족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119개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요한 프로그램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3.2.2. 사업 추진방식

신규 농업인을 지원하고자 진행된 교육 및 훈련 방식은 도제식 교육 또는 인턴십, 현장 실습, 멘토링, 네트워크, 실습 농장, 토지 연결 등이 있다. 각 교육 및 훈련 방식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교육 및 훈련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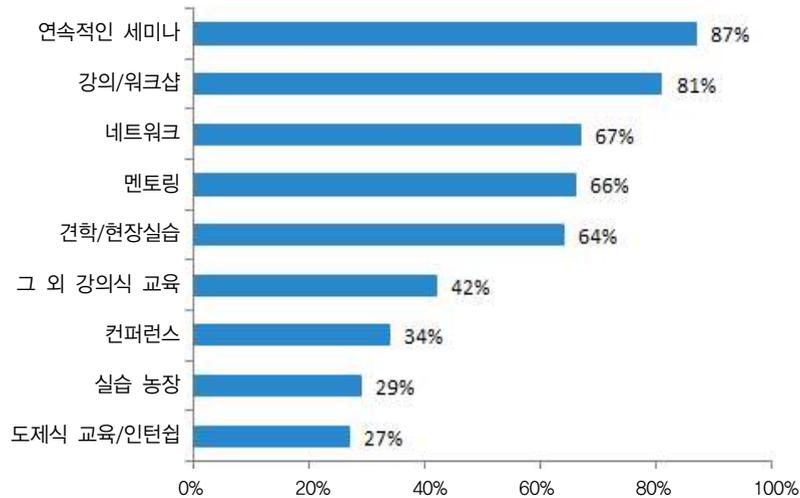
교육 및 훈련 방식	내용
도제식 교육, 인턴십	농장에 인턴으로 취업하여 농사일을 배우는 방식. 스스로 농사일을 경험하면서 기술을 터득하도록 지원
현장 실습	현장에서 농업관련 연구와 생산 실습 등을 진행. 농장에서 개최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구조화된 프로그램 안에서 숙련된 농업인이 신규 농업인에게 필요한 기술 등 전수
네트워크	농업인이 서로 연계되어 정보를 주고받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이 끝나도 지속되도록 관리
실습 농장	신규 농업인이 일시적으로 농업 활동을 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농장 제공
토지 연결	토지를 찾는 신규 농업인과 토지를 팔거나 임대하려는 농업인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신규 농업인 여럿이 하나의 토지를 임대하도록 연결하여 주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일부지역의 토지 연결 프로그램에서는 후계농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함

자료: Obudzinski *et al.*(2017).

사업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단체가 신규 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다양한 교육, 훈련, 지원 방법을 결합하여 진행했다. <그림 5>는 각 프로그램이 신규 농업인을 교육하려고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였는지 보여준다. 전체 프로그램의 64%가 4개 이상의 교육방법을 결합하였으며, 특히 네트워크, 멘토링, 현장실습을 워크숍과 세미나 등의 전형적인 수업과 결합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5〉 교육 및 훈련 방법 활용 비율

(중복응답/ n=119/ 단위:%)



자료: Obudzinski *et al.*(2017).

비영리조직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이끄는 프로그램보다 멘토링, 네트워크 등과 같은 경험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다. 비영리 조직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는 대학이나 교육 기관보다 도제식 교육방법을 2배 이상 많이 사용했다. 신규 농업인은 도제식 교육을 가장 유익한 훈련방식으로 꼽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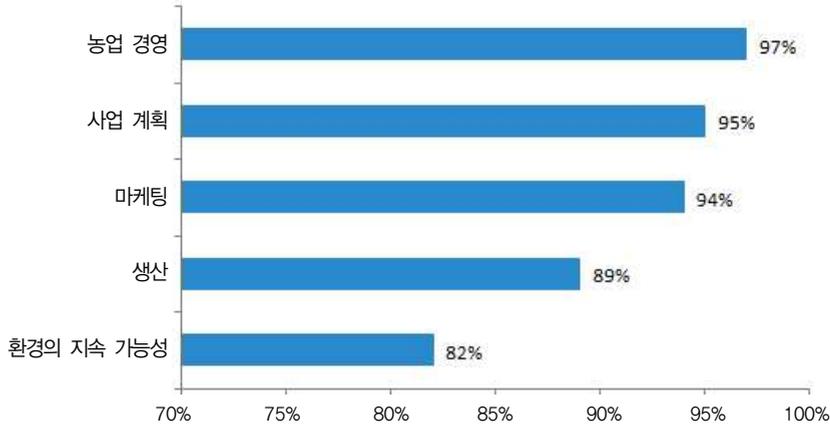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에게 문화적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자 농업인에게 유통망과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 기계 사용법, 용자, USDA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농업인으로 정착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조금 정책 지원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언어지원도 있었다. 일부 프로그램은 다문화 관련 조직과 협업하거나 전문가를 고용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높였다. 전체 프로그램의 49%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신규 농업인에게 문화적 지원을 했다.

### 3.2.3.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운영자는 교육과 훈련 방식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다. 농업 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림 6〉 제공 프로그램 내용 (%)

(중복응답/ n=119/ 단위:%)



자료: Obudzinski *et al.*(2017).

〈그림 6〉과 같이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농업 경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 노무 관리, 법률 관련 주제, 토지 인수, 재정 관리 등의 주제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신규 농업인이 실제 농업기업 운영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마케팅 관련 교육인 유통망 채널, 판매, 가격 설정, 홍보 등도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진행한 교육주제이다.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참여자들이 돼지 축사, 허브농장 등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소규모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규 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려면 자원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USDA의 농업서비스국(Farm Service Agency, USDA/FSA)에 자신의 경영 능력과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능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체 프로그램의 39%에서 신규 농업인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주었다. 은행 직원, FSA, USDA의 자연자원 보존서비스(Th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신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자본과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대출 상품 등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규 농업인은 특히 경작할 토지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전체 프로그램의 43%에서 신규 농업인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이 주었다. 실습 농장〈표 1〉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경유지 소유자와 신규 농업인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농장에

구입하려고 용자를 받고자 하는 신규 농업인에게 용자 지원 시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일부 프로그램에선 은퇴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승계 계획, 자산계획 등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토지구입을 희망하거나 승계를 원하는 신규 농업인과 연결을 해주었다.

전체 프로그램의 29%에서 토지, 기계 등을 지원하는 실습 농장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거의 무상으로 신규 농업인이 일시적으로 농업활동을 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왔다. 실습농장은 특히 땅값이 비싼 도시지역에서 진행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 3.2.4. 운영 방식 - 파트너십, 농업인 참여

신규농 육성사업에서는 각 프로젝트가 파트너십을 맺거나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규농 육성사업 지침서에서 프로젝트 파트너를 “프로젝트 운영의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갖는 조직 간의 협력 관계”라고 정의했고, 협업자를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조직을 돕지만, 프로그램 운영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조직”이라 정의했다. 전체 프로그램의 90% 이상이 다른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비영리 조직이 이끄는 프로젝트의 67%가 4개 이상의 조직과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신규농 육성사업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어떤 종류의 조직들과 협업하는지의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되었다. 비영리 기업이나 지역사회 기반조직이 협업을 이끄는 중심 조직이거나, 교육기관이 중심 조직이지만 프로그램 예산의 25%를 협업하는 비영리 기업과 지역사회 기반 조직에 배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결정과정 등에 농업인이 참여하는 정도가 신규농 육성사업의 주요한 선정 기준이다. 전체 프로그램의 82%에서 프로그램 기획에 농업인을 참여시켰다.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또는 자문하기도 했다. 전체 프로그램의 85%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농업인을 참여시켰다. 신규 농업인의 교육자로 참여하거나(전체 프로그램의 65%), 멘토 또는 기술 자문 역할(66%), 프로그램 관리자나 운영자(21%) 등의 역할을 하였다.

## 4. 신규농 육성사업의 산출과 성과

### 4.1. 산출(Output)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119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은 농업인은 총 12만 2,028명이다. 명확하게 신규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106개로 실질적으로 신규 농업인 약 6만 명이 참여했다. 1년 가까이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농업과 관련한 폭넓은 지식을 전달하려고 기획한 2개 이상의 세션에 참여하여 심층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신규 농업인은 약 1만 1,000명이다. 전체 프로그램의 약 1/5에서 신규 농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문농업 교육인, 농업인, 토지 소유자, 지역 전문가 등이 대상자이다. 23개의 프로젝트에서 1,778명의 교육자가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취약계층의 신규 농업인 규모는 <표 3>과 같다. 68개 프로젝트에서

<표 2>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교육자 수

구분	참여자 수	1개 프로젝트 당 참여자 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 농업인	59,571	199
심층 훈련을 받은 신규 농업인	10,844	60
농업 교육자 훈련을 받은 참여자	1,778	38

자료: Obudzinski *et al.*(2017).

<표 3> 취약계층 참여자 대상 프로젝트와 참여자 수

(중복가능/ 단위: 프로젝트 수 - 개, 참여자 수 - 명)

참여자 구분	프로젝트 수	참여자 수	1개 프로젝트 당 참여자 수
취약계층 신규 농업인	68	28,620	105
여성	63	25,979	130
사회적 소수자 <sup>a</sup>	50	19,285	55
이민자와 난민	22	3,019	46
저소득자/차상위계층	41	20,344	90
장애인	1	37	37
퇴역 군인	10	1,032	9

주: (a)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원주민, 아시안 또는 북미 동부 연안 주민임.  
 자료: Obudzinski *et al.*(2017).

총 2만 8,620명이 지원되었다. 참여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 참여자가 2만 5,979명, 저소득/차상위 계층이 2만 344명, 사회적 소수자가 1만 9,285명, 이민자와 난민 3,019명, 퇴역군인이 1,032명 등이었다.

#### 4.2. 성과(Outcome)

신규농 육성사업의 단기성과는 1만 5,000명 이상의 신규 농업인이 61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식, 기술, 직업의식 등을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신규 농업인의 양봉, 식물번식, 피복작물, 과일 생산 등의 생산성이 높아졌다.

45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약 6,000명의 신규 농업인이 사업기획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점도 단기적인 성과이다. 위기관리능력, 토지획득 전략, 인터넷 마케팅 능력 등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중기 성과는 <표 4>와 같다. 사업에 참여한 신규 농업인 중 4,000명 이상이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각 프로젝트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70% 이상이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했다. 전체 프로젝트의 3/2에서 각 프로젝트에 참여한 신규 농업인의 48%~95%가 현재 농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프로젝트 참여한 1,960명의 신규 농업인이 사업 기간 동안 농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냈다. 실습 농장에 참여하여, 수익을 내면서 농업을 시작한 참여자도 포함한 수치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프로젝트의 50%에서 각 프로젝트 이수자의 80%가 농업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표 4> 중기 성과

	프로젝트 수 (개)	참여자 수 (명)	1개 프로젝트 당 참여자 수 (명)
농업 시작을 위한 계획	24	4,159	173
농업 시작(프로젝트 기간 동안)	41	1,860	45
지속적인 농업 진행	24	9,416	392
농장 운영 방식의 변화 또는 추가	43	5,544	129

자료: Obudzinski *et al.*(2017).

이 외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약 4,000명의 농업인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였다는 점도 중기 성과에 해당한다. 재무제표, 현금 흐름 예측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는 대출 기관에서 용자를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약 1,000여 명의 농업인이 완성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용자를 신청했고, 500여 명이 사업 기간 동안 용자를 받았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점도 큰 성과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소득이 증가하였고, 특히 취약계층 농업인의 경우 언어능력이 향상되거나 농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도 했다.

장기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더 많은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장을 경영하게 되었다. 농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 코스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중서부의 한 프로젝트 담당자가 이수자의 농장 경영 여부를 확인했다.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 조사했을 때는 34명의 응답자 중 50%가 자신의 농장을 경영한다고 답했다. 프로젝트가 끝난 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자신의 농장을 경영한다고 응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 농업인이 다루는 작물이 다양해졌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증가했다. 서부지역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83%가 경작하는 작물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기반시설과 농기구에 대한 투자도 늘어났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3%는 고객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업인의 경영방식이 향상되었다는 점도 장기적인 성과에 해당한다. 미시간 주(州)에서는 30개월 동안 42명의 신규 농업인에게 워크숍, 현장실습, 그 외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업이 끝나고 3년이 지난 후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86%가 경영방식을 바꾸었고, 농장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 5. 시사점

미국은 한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었고, 농업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젊은 층의 농업인의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신규농 육성사업을 추진했다. 미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신규 농업인이 영농 기반을 갖추어 농업분야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신규농 육성사업은 미국 전역의 신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의 프로젝트를 우선 선발하고 지원하여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다양한 조직이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각 지역의 농업인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는 관리 방식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의 미래를 이끌 후계세대를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신규농 육성사업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점검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Obudzinski, J., Perez, T., Williams, A. 2017. *Cultivating the Next generation - An Evaluation of the Beginning Farmers & Rancher Development Program(2009 to 2015)*. National Sustainable Agriculture Coalition.

USDA NASS. 2012, *2012 Census Highlights*. [https://www.agcensus.usda.gov/Publications/2012/Online\\_Resources/Highlights/Farm\\_Demographics/](https://www.agcensus.usda.gov/Publications/2012/Online_Resources/Highlights/Farm_Demographics/). 검색일:2017.12.07.